

다 행이 나랏일은 일찌감치
 세자에게 물려주었기에 학문에 전
 념할 수 있었지만 아제는 내일을
 아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...



이대로는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요.

양념을 세자·차리에서 내리고
궁에서 나가 살게 하시오.”

궁궐을
나는
살하는
사랑이다.
하하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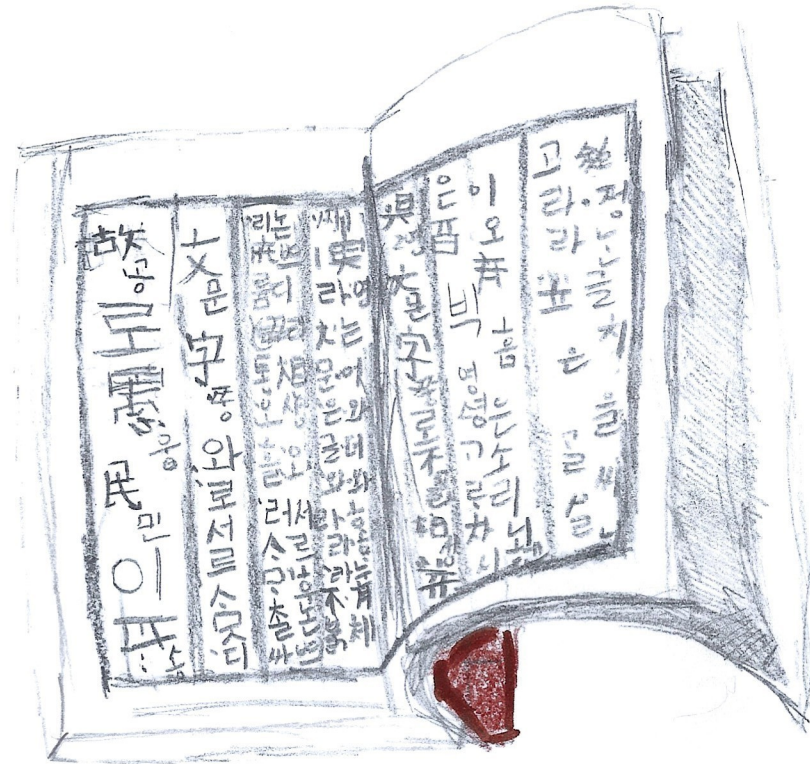
32





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
세종대왕





신지영